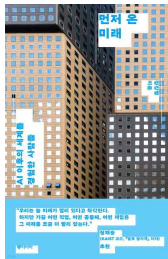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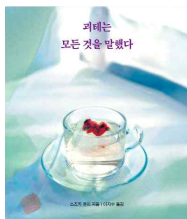


강의계획서

강좌명	AI 시대, 괴테에게 길을 묻다 - '먼저 온 미래'를 맞이하는 어른들을 위한 인문학 처방전			강사명	정은혜
강의대상	일반	분야	독서교육	강의가능 시간	요일: 화 시간: 10:00~12:00
강 의 소 개					
강의목표	<먼저 온 미래>를 통해 AI가 바꾼 기술적 불안의 실체를 마주하며 객관적으로 들여다 보고 막연한 공포를 구체적 질문으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200년 전 괴테가 남긴 통찰이 AI라는 거대한 기술 변화 속에서도 왜 여전히 유효한지 탐구하며, 변하지 않는 '인간다움'의 가치를 정의합니다. 급변하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 철학이 있는 삶으로 방향성을 찾아봅니다. 기술이 앞서 갈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빠른 컴퓨터가 아니라 더 깊은 철학입니다.				
강 의 내 용					
회차	강의단원	세부내용			
1	먼저 온 미래 /장강명 글 /동아시아 (2025)	 1. 이 책의 제목 『먼저 온 미래』를 처음 봤을 때 어떤 미래가 가장 먼저 떠올랐나요? 2. 이 책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 ‘이건 내 이야기다’라고 느껴진 사례가 있었나요? 3. AI는 일자리를 없앴다기보다 일의 방식과 의미를바꾼다고 합니다. 내 삶에서 ‘일의 의미’가 가장 크게 변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2		1. 요즘 내 일상에 슬쩍 들어와 있는 AI같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2. 책을 읽으며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존재라기보다 인간의 선택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존재처럼 느껴지지는 않았나요? 3. 기술이 바뀌어도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나만의 가치나 능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4. AI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은 무엇인가요? (기대 / 불안 / 무관심 / 피로 / 호기심 등 중에서) 5.'먼저 온 미래'에서 나의 자리 찾기: 장강명 작가가 소개한 사례들 중 나의 불안과 가장 닮은 지점을 찾아보고 이야기 나눈다.			
3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 스즈키 유이 글/ 리프 (2025)	 1.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의 말을 얼마나 믿고 따르려고 하는가? 2. 누군가의 말이나 문장을 스스로 생각하는 대신 기준으로 삼은 경험을 이야기 나눠본다. 3. 이 작품을 읽으면서 웃음이나 불편함을 느꼈던 장면을 이야기 나눠본다. 4. 만약 괴테가 오늘날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의 말을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받아들였을까?			
4		1 인용과 해석의 경계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문장을 내 삶에 가져오는 순간 그것은 여전히 원래의 말일까, 아니면 나만의 말이 될까? 2. 앞으로 문장이나 명언을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생길 것 같나요?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3. 괴테의 렌즈로 장강명 읽기: <먼저 온 미래>에 등장하는 AI 시대의 고민들(예: 일자리 상실, 관계의 소외)에 대해 "만약 괴테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조언을 했을까?" 4.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에서 그 불안을 잠재울 '마법의 문장'을 채집해 봅니다.			
기대 효과	장강명 작가의 르포르타주와 괴테의 철학적 잠언을 함께 읽으며,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본질을 꿰뚫어 보는 ‘어른의 문해력’을 기릅니다. 괴테라는 렌즈를 통해 나의 재능과 가치관을 재점검하고, AI와 공존하는 시대에 내가 추구해야 할 삶의 질과 행복의 기준을 새롭게 설정합니다.				